

남북·유엔사, JSA 태풍 피해 건물 공동복구

정전협정 이후 첫 3자 협력 작업
北·유엔사 직접대면 일정 협의
JSA 자유 왕래 기대감 높아져



23일 유엔사에 따르면 남북한과 유엔사는 3자 협력으로 지난 12~14일 서울간 JSA 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지붕 등을 공사했다. 북한 측 작업 인력이 유엔사 승인 아래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며 보수 공사를 했다. /연합뉴스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가 협력해 최근 태풍 피해를 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건물 보수 작업을 했다. 남북 및 유엔사 등 3자가 협력해 JSA 내 건물 보수 작업을 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판문점 선인과 9·19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 조치의 효과로 분석되며, 앞으로 JSA 남북지역 자유 왕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유엔사에 따르면 남북한과 유엔사는 3자 협력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JSA 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지붕 등의 공사를 했다. 북한 측 작업 인력이 유엔사 승인 아래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며 보수 공사를 했다. 보수 공사는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파손된 회의실 건물 지붕 등을 주로 수리했다. 북한 측에서는 인력 10여 명이 동원됐다. 태풍 피해는 JSA 내 군정위 회의실 건물 복속 관찰 구간에 집중됐다. 건물 지붕 자재인 양철판이 강한 바람에 날아갔고, 이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이와 관련, 유엔사는 "유엔사와 북한군 양측의 요원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수 작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9월 11일부터 판문점에서 정례적인 전화 통화와 직접 대면 소통을 통해 JSA 내의 회담장과 기타

기간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 일정을 조정하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당시 보수 공사 장면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유엔사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JSA에서 바쁘게 이뤄졌다"면서 "공정적인 측면은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북한 인원과 함께 협력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우리에게 JSA가 북한, 유엔사령부, 그리고 대한민

국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 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사의 한 관계자는 "유엔사는 65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유엔사의 임무인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JSA 내 건물은 유엔사와 북한 측이 각자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남북한과 유엔사 등 3자가 협력해 JSA 내 회의장 등 건물 보수 공사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한-유엔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작년 10월 27일부로 JSA 내 지뢰 제거, 초소 및 화기 철수, 상호 공동 현장점검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3자는 'JSA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안'을 협의 중이다. 북한 측의 호응으로 이 규칙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끝나면 남북 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 내 자유 왕래 길이 열린다. 이 규칙안 협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99〉 송 태종

조광의(趙匡義, 939-997)는 북송의 2대 황제로 묘호는 태종이다. 송태조 조광윤의 친동생으로 북송의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979년 당나라에 이어 중국을 재통일했다. 무관 조흥은과 두씨 사이에 태어났고 송태조 조광윤의 실제(弟)다. 조광윤이 후한과 후주의 군관으로 활약하는 동안 충실히 형을 보좌했다. 960년 조광윤이 개봉의 외관인 진교에서 송의 황제로 즉위하는데 조보 등과 함께 막후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개보 9년(976) 10월 태조가 급사했다. 조덕소와 조덕방이라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지만 동생인 조광의가 2대 황제인 태종으로 즉위했다. 동생의 즉위에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출되었다. 게다가 대부분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다. 진사 중심의 과거제도는 그의 아들인 진종때도 계속 이어져 1000년 급제자 수가 무려 1538명에 달했다. 중국 과거제도 역사상 가장 많은 급제자 수로 기록된다. 중국의 재통일 작업도 태종때 마무리되었다. 태조가 정복하지 못한 오대 십국 중 오, 월, 복한을 멸망시켜 979년 중국을 재통일했다. 남당의 후주 이욱은 유명한 시인으로 개봉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사대부에게 인기가 많았다. 질투심에 이욱에게 사약을 내린 것은 재통일 과정의 씁쓸한 뒷이야기 중 하나다. 요나라가 점령한 연운 16주를 회복하기 위해 요나라와 싸움을 벌였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오대를 멸한 후 회복의 유주를 공격했다. 베이징 주

979년 당나라 이어 중국 재통일

축영부성(纒影斧聲)이 대표적인 고사다. 눈오는 밤 동생이 휘두른 도끼에 맞아 형이 죽었다는 내용이다. 실상은 자신을 황제로 옹립하는데 큰 공을 세운 동생에게 제위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친인 두 태후가 생존시 이와 같은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소위 급계지 맹이다. 태종의 계승 문제는 이제 천재불결(千載不決)의 의심이다. 아들 조덕소와 조덕방은 영흥군절도사와 서산남도절도사가 되었는데 각각 977년, 981년 죽었다. 조덕소는 황제 옹립 움직임과 관련되어 자살을 강요당했다고 전해진다. 태조의 후궁 화예부인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설도 심심치 않게 회자된다. 후축의 군주 맹장의 부인이었는데 시와 글쓰기에 능했다고 한다. 후축을 멸한 후 태조가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다. 동생인 태종이 눈독을 들여 둘 사이가 나빠졌고 그 와중에 태조가 급사해 타살설이 불거져 나왔다는 내용이다. 신빙성 여부는 알 길이 없다. 태종은 형의 정책을 충실히 계승해 북송의 통치기반을 굳건히 했다는 공적이 인정된다. 무엇보다도 문관정치가 확립되었다. 태조의 뜻을 받아들여 문관 선별 제도를 정비했다. 취임 첫째 500명을 합격시켰다. 태조 재위기간 350명의 과거 급제자가 배출된 반면 태종 재위기간 5816명의 급제자가 배

번의 고량하에서 양 군이 충돌했는데 거란의 유격전에 말려 참패했다. 986년 재차 북방을 추진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송의 장수 양복이 요의 계략에 말려 생포되어 옥에서 죽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북방을 정복하려는 꿈을 포기하고 요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실리를 택했다. 1004년 양국이 전연의 맹을 맺어 40여년간 평화를 유지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문인정치가 문치주의로 확실하게 전환된 것도 태종때의 일이다. 당 왕조를 폐망으로 이끈 절도사 제도를 약화시키고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 업무를 중앙이 보낸 현위가 담당토록 하고 전운사를 두어 징세 업무를 관할토록 했다. 국가 재정업무는 삼사(三司)라는 독립된 기관의 관할 하에 두었고 추밀원은 군사 업무에 관해 발언권이 강했다. 대규모 출납 사업을 벌여 '고상하고 박식한 주군'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재임기간 중 유교 경전을 지속적으로 출판했고 백과사전류의 관한 유서(類書) 간행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즉기 전해인 996년 '권위 있는 고전 도서 판본을 준비하라'는 명을 내렸다. 태종은 997년 59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재임기간 중 송의 지배체제가 확립되었고 왕조는 개봉을 중심으로 문화, 경제적 번영기에 접어들었다.

“북미 실무협상 초읽기...美 제재문제 유연성”

강경화 외교장관 뉴욕 회견
“北 포괄적 합의 화답이 관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정할 상응조치에 있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방문한 뉴욕에서 한 회견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제재해제’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유연한 입장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선

(先) 핵폐기-후(後) 보상’의 리비아 방식을 비판하며 긴급한 ‘새로운 방법’도 상응 조치가 있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국제사회가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의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7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12~18개월 간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 제재 유예 기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있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제재를 다시 가하자는 것이다. 다만, 상응 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유연한 태도’는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어느 정도 양보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연합뉴스

“일본, 5~9월 발사 北 미사일궤도 탐지 실패”

교도통신 보도...“한국은 탐지”
“지소미아 종료시 日 어려움”

일본 정부는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북수의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5~9월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km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국군과 일본 방위성은 이 기간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에이태킵스(ATACMS-미국산 전술 지대지대미사일)’와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 로켓포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교도는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 KN23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탄도미사일과 매우 비슷하며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변칙적인 궤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예상 외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서 한미 양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투자가치 좋은 경매물건 추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계(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月) (10:00)

2018타경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712,816,000원	오늘조회: 5	2주누적: 207	2주평균: 15
토지면적	19835㎡(6000.088평)	최저가	(70%) 1,198,971,000원	구분	임차기일	최저매각가격
건물면적		보증금	(10%) 119,900,000원	1차	2019-09-02	1,712,816,000원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2차	2019-10-14	1,198,971,000원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목적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토지	1	월암리 62-12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현황 '목전'
	2	월암리 62-15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현황 '목전'
	3	월암리 62-16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현황 '목전'
합계		면적소계 19835㎡(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토지 매각	

